

성서40주간(제37주간 : 티모테오 1, 2서)

1. 책의 이름

- 티모테오 1서와 2서, 디도서는 그 내용과 특징으로 인해 사목 서간이다.
- 내용을 보면 한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들에게 참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알아야하고 지켜야할 가르침들을 폭넓게 전하고 있다.
- 즉, 교회와 교회의 직분, 제도와 조직,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 교설들과 꾸며낸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주며 가르침을 펼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사목적 서간이다.
- 따라서 이 사목 서간은 그 당시 교회의 감독직, 장르 및 봉사자의 선정 규정이나 임명 방식을 언급하고 교회 운영 방식에 관한 확고한 가르침을 펼침으로써 초기 교회의 제도와 교회론 적인 가르침들,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.

2. 저자와 집필 연대

-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저자가 살고 있던 시대 및 환경에 적용하여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.
- 가장 유력한 집필 연대는 기원 후 100년경으로 추정된다.

3. 사목서간을 대하는 자세

- 족보 이야기, 거짓 교설 등이 난무하던 시대(1티모1,3f) 살아가는 교회의 사목자들에게 복음을 수호하고, 전파하며, 복음을 실천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이 사목 서간은, 사목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모든 가치의 혼란과 혼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,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복음적 사명을 새롭게 쇄신시켜 주는 말씀이다.

4. 티모테오 1,2서의 구조

1티모 1,1-3,16 : 이단에 대한 경고와 교회의 규범

1티모 4,1-6,21 : 사목자의 사명과 언행

2티모 1,1-2,26 : 복음의 봉사에 충실하라는 당부

2티모 3,1-4,22 : 마지막 명령

5. 내용

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

1) 이단과 복음(1,3-20)

- 복음의 역군 사목자로서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, 티모1서의 시작에서 언급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단자의 그릇된 가르침을 배격하는

일이다.

- ① 복음 선포는 토론이 아니다.
- ② 복음 선포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표현된다.
- ③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(1,19)

2) 교회의 규범(2,1-3,16)

- ① 교회의 공적 예배(참된 예배)
- ② 기도를 드릴 때의 바른 자세는 (2,8f)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(2,9-11)
- ③ 교회의 직분(3,1-16)

3) 교직자의 사명과 언행(4,1 - 6,2)

- ① 이단자들의 오류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.
- ②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(4,6-5,2)
- ③ 과부들에 대하여 (5,3-16)
- ④ 원로들에 대해 (5,7-6,2)

4) 여러 가지 권고들 (6,3-21)

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편지

1) 복음의 봉사에 충실하라(1,3-2,13)

2) 이단자들에 대한 적절한 태도(2,14-2,26)

- ① 하느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되라(2,15)
- ② 교직자는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사랑의 정신(2,22-26)

4) 마지막 명령(3,1-4,8)

- ① 성서를 읽어라
- ②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(4,2)

성서 봉독 2 티모 4,2

[말씀을 선포하십시오.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]